

de Mexico)에 각각의 카드마다 1,000 페소 (한국돈 십만원정도)가 입금된 현금 카드 1,800,000 개가 페냐 니에토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배부되고 있다는 것으로, 각각의 카드에는 전국 노동자 연합 (CTM, Confederacion de Trabajadores de Mexico)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언급된 단체는 공개적으로 페냐 니에토를 지지하고 있다. 2012 년 6 월 28 일 목요일 기자 회견장에서 위의 카드중에서 3 천장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추가적으로 밝히기를 제도 혁명당 (PRI)은 100 페소 (한국돈 만원)가 입금된 전화 카드 5 백만장도 현재 시민들에게 배포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민주 혁명당(PRD)에 의하면, 언급된 Soriana 는 페냐 니에토의 멕시코주지사 재임시절인 2009 년, 3,000,000,000 페소 (한국돈 3 천억원), 2,000,000,000 페소 (한국돈 2 천억원)에 해당하는 Soriana 선불 카드 발행에 대한 두번의 계약을 통하여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도 계속하여 계약을 통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한다.

선거의 비망과 덧붙여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지식인층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간에 나타난 적극적 영향력 행시라고 할 수있는데, 인터넷 매체를 통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과 더불어, 직접적인 시가지(市街地) 행진을 통하여, 보다 나은 멕시코를 위하여 대학생 및 시민들의 지성적인 투표권 행사 촉구 및 언론 매체의 공정성과 신자유주의의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는 Yo soy 132 라는 운동이다.

페냐 니에토의 이베로 사립 대학 방문을 계기로 하여 촉발된 “Yo Soy 132”운동은 이번 대선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하는 새로운 학생운동의 기폭제(起爆劑)가 되었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사건의 개요(概要)은 다음과 같다.



이베로 대학에서의 Pena nieto

Pedro Joaquin Coldwell

2012 년 5 월 11 일 페냐 니에토 (EPN)는 400 여명의 이베로측 학생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으나, 대부분이 페냐 니에토의 운동원이라는 것이 이베로 학생들의 증언이며,



삼엄한 경비속을 헤치고 강당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였던 학생들중의 하나가 위에서 언급된 아텐코 (Atenco)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페냐 니에토는 당시에 행하였던 행동은 적법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자, 학생들이 여기저기에서 “살인자” “우리로 아텐코의 일부분이다” “이베로 대학은 너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식하지 않다”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생각지 못한 반응에 당황한 제도 혁명당(PRI) 당수이며 이베로 대학 출신인 빠드로 호아킨 (Pedro Joaquin Coldwell)은 언론에 해당 구호를 외친 학생들은 극소수이며, 해당 학생들이 이베로대학 출신이라는 것에도 의문이 든다고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며 젊은 층에게도 페냐 니에토가 인기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언론 플레이에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베로 학생들 131 명이 자신의 학생증을 직접 유튜브 (비디오 제목: Yo soy 131)에 보이며 자신이 구호를 외쳤다는 것과 특정 단체로부터 훈련을 받은 운동원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하였는데 (한국이라면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세력이 존재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였겠지요), 이러한 사이버상 (Cyber Network)에서의 활동에 자극을 받은, 이전에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뭉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우남대 (UNAM), 우암대 (UAM, Universidad Autonoma de Mexico) 및 폴리텍 (IPN) 등의 국립대들과 사립대들간의 결집을 유도한 결과가 되었다.



UNAM



UAM



IPN

국립대들과 사립대들의 학생들로서 결성된 학생들은 자신들은 “나는 132 번째다 (Yo soy 132)”라는 구호가 적힌 플랭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하였으며, 유튜브상에서도 자신은 132 번째라며 멕시코 국내를 비롯하여 스페인, 독일등 여러나라에 거주하는 멕시코 학생들은 스스로 동영상 올리며 항의시위를 펼치고 있는데, 이들의 중요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를 반대하며, 멕시코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전 보다 나은 멕시코를 위하여 한번더 생각해보기를 표명(表明)하고 있으며, 대중매체의 특정 후보 옹호(擁護)를 중단하고



정당한 시선으로 각후보를 평가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공정 선거를 위하여 참관인으로서 투표 참여를 연방 선거 관리위원회 (IFE)에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이들 자발적 학생 단체 Yo soy 132는 6월 30일 토요일 자정에는 손에 촛불을 들고 레포르마 대로를 거쳐 소칼로(Zocalo)까지 침묵의 행진을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북한의 사주(使噓)를 받았거나, 종북(從北)세력이라는 오해와 함께 정부의 사찰(査察)도 받을 수있는 충분한 소지(素地)도 있는 촛불 행진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점에서 참 부럽게 생각한다.

참고로, 우남대 (UNAM)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은 우수하지만, 집안이 가난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으로 경쟁력이 치열하고, 우남대 2011년 입학 시험의 경우, 181,000명이상의 지원자중에서 16,000명 (8.8%)이 입학을 하였고, 우남대 (UAM)의 경우에는 2012년 80,000명의 지원자중에서 단지 12,500(15.6%)명에게만 입학이 허가되고, 폴리텍(IPN)대학의 경우에는 2012년 90,000명의 지원자중에서 23,000명 (25.5%)만 입학을 하게되는데, 국립대, 특히, 필자가 다닌 우남대의 경우는 국가로부터의 정부 보조금으로 인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없이 일년 학비가 한국돈으로 대략 300만 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거의 무료란점이 매력으로 작용하며, 우남대 법대 멕시코 시티 캠퍼스는 교수진이 멕시코 국회의원, 전임 검찰 총장, 다국적 기업 대표 고문 변호사등 수입이 상상을 초월하는 교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동문(同門)들인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4시간 강의로 한달 대략 1,400 페소 (한국돈 14만원정도)를 학교에서 받는데, 언급된 교수진들은 페라리를 기본으로 하여 담당 운전수가 있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시 위의 월급은 한끼 식사비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연방 대법원 판사 (연봉 대략 6억원정도, 15년 임기, 정년후 연금 보장)이면서 동시에 우남대에서 강의를 주고 있는 교수의 경우는 직책상, 판사 월급이외의 돈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우남대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대로 기부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Telmex



Carlos Slim



MAEES

국립대와는 상반되게 사립대의 경우는, 위에서 예를 든 멕시코 시티 소재지(所在地) 이베로 대학교의 경우에는 2012 년 8 월 한학기 24 학점을 듣는 법대생의 경우, 대략적으로 80,339 페소 (한국돈 8 백만원정도)를 지불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Telmex 회사를 소유한 카를로스 슬림 (Carlos Slim)이 살고있을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상당한 멕시코에서 이러한 학비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일부는 마약 카르텔에 가입하거나 혹은 무기 밀매등에 관여하는 것이 현 멕시코의 현실이다.

2012 년학기에는 대략적으로 200,000 명의 학생들이 대학 교육으로부터 배제(排除)될것이며, 이로 인하여 결성된 입학에서 탈락된 학생들의 모임 (MAEES, Movimiento de Aspirantes Excluidos de la Educacion Superior)은 국가 비상상태의 선포와 함께 국립대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 과열에 관하여, 연방 선거 관리 위원회 (IFE) 및 연방 검찰국(PGR)은 선거법 위반 감사 기구 (FEPADE, Fiscalia Especializada para la Atencion de Delitos Electorales)를 통하여, 대략적으로 220,000 명에 대한 선거 관련 교육 및 782 번에 걸친 컨퍼런스 (Conference)를 주도하였으나, 2012 년 3 월 30 일부터 2012 년 6 월 27 일까지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동안, 555 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언급된 감사 기구를 통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선거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는 짐작하고 남는다고 할 수 있다.

#### IV. 제도 혁명당(PRI) 소속 페냐 니에토 (Enrique Pena Nieto) 후보의 2012년 7월 2일 대통령 당선의 요인 분석 및 해결 과제